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8.2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2025 상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

- (호라이즌유럽)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월부터 한국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, 지난 7월 17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[서명식 개최](#)
- (MFF) 7월 집행위는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[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\(MFF\) 제안서를 발표](#). 차기 MFF에서는 유연성 강화, 간소화된 프로그램, 국가 및 지역 맞춤형 전략, 경쟁력 제고, 새로운 자체 자원 패키지를 도입. 동 MFF 제안 채택에는 이사회 만장일치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
- (FP10)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P10이 집행위의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 것이라는 추측과 우려가 발생. 차기 호라이즌 유럽(FP10)은 4개 핵심축*을 기반으로 하며, 필라2는 유럽 경쟁력기금(ECF)과 전략적으로 연계. 집행위는 2028~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현재의 약 두 배인 1,750억 유로로 증액
- (ECF) 유럽경쟁력기금(ECF) 예산은 4,090억 유로로, 4개 분야(청정전환·탈탄소화, 디지털 전환, 보건·바이오테크·농업·바이오경제, 국방·우주)에 지원 집중. 이 중 호라이즌 유럽에 1,750억 유로 배분
- (경쟁력) 집행위는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'[경쟁력 나침반\(Competitiveness Compass\)](#)'을 발표. 관련하여 [Union of Skills\(기술연합\)](#) 이니셔티브, [유럽 단일시장 전략](#), [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](#), [양자 전략](#) 및 [생명과학 전략](#)을 발표
- (연구자 유치) 연구자 유치 및 경력 개발을 위해 [Choose Europe for Science 패키지](#) 발표. 이는 과학 연구의 자유 보장, 연구자 재정 지원, 혁신·비즈니스 촉진, 연구자 유럽 유치 강화를 목표. 2,250만 유로 규모의 MSCA Choose Europe 파일럿 프로그램, '[ERC+](#) 슈퍼그랜트' 공고 등 포함
- (이사회) 이사회 의장국 [덴마크\(하반기\)](#)는 [폴란드\(상반기\)](#)의 뒤를 이어 키프로스에 의장직을 넘겨줄 예정. 18개월간의 3국 공동 의장국(폴란드-덴마크-키프로스)의 핵심 우선과제는 안보, 경쟁력, 유럽 민주주의